

제1기 위원회:
Partnership의 역할: 기존에 중립 운영의 관행
위문과 대화로 하는 기능 주어

박영숙 위원장님.

지속위원회 권기태 입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 기 자 :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 일 시 : 2002년 10월 1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위원장실

☐ 시 간 : 1시간 이내

☐ 내 용 : 질문꼭지를 미리 보내달라고 했는데 별도로 만들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평소와 같
이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합니다.

- 제1기 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시면서 느끼신 점(평가)과 제2기
위원회의 운영 방향...
- 위원구성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개발분야가 적다고 하는 등)
- 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통령 직속, 총
리실 산하 등)
- WSSD의 이후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위문회의 1013430797

action of implementation
Political statement

agenda to action

구현방안 강령 대안위원회

기후 → 환경 → 국제 → 지역 → 지구

경제개발국 위문
인간개발 위문

후진국 위문 대안위원회
1

조화반기반은 $\sqrt{2}$ 정도는 맞다
반은 $\sqrt{2}$ 정도는 맞다

2010년 9월 10일 수요일

I 이위근씨는 환경보안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질병에 관해 태블릿에 대해 과중한 기구임.

$$2\pi \times 10^8 = 2\pi \times 10^8$$

정부정책의 지출증발현상을 살펴보고, 감시하고

중국 지방정부의 발전과 권력분산을 위하여

UN 지옥기능(발견된 지옥터)에 해독기능을 의제 2의 이행성에서 찾고자 하는
점진하는 기능을 갖기로 약속한다.

의제 21이란 1992년 보라길 리우에서의 지구정상회의에서 178개국의
정상들이 합의한 21세기 지구환경을 보전해나가는 행동계획으로서
지구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의 청사진이다.

이외에도 12개 부처의 장관등 13명의 당면직 위원과
시민단체, 학계, 경제선임자 등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선임자} ^{학계} ^{시민단체} ^{부처의 장관등}

실수란 이 미적분학과 맞음.

 γHfN_2 .

II 2수로는 두번씩 뒤로 보내고 앞의 세개와 각각 합쳐서 4개의 구간을 ?

리얼리즘과 사실주의를 추구한 문예사조

이러한 두 동화, 공명황후를 부처님 하고

대기오염을 줄 인하는 정책권 각급개악 하고

봄이 되면서 황새를

여러분이 이상기분을 이상 행동에 실행하려 하고

부러워할 겨를도 없이

매년 4월 23일 지구의 날, 5월 31일, 9월 21일

저가기술로 저가의 자원능력을 가진 자들은 심각한 경쟁력을

[Handwritten signature]

국제환경, 지구환경의 남로 계속 알려줘야 하고 있다

한글로 정답을 써주세요

위헌이란 이반이론 리방안과 권력은 이미

III

국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것이 바로 ^내 의제지이라는 행동양식에 담겨져 있는 비공식
중이다.

국제적으로도 UN 의제지이 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입헌제도가 만들어졌고
최종적으로 90% 이상의 국내에서 제정된 헌법들이
의제지를 수락해 놓고 있다.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입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임에
함께 ^내 의제지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그이후로는 ^내 개인은 행동양식을 포기하려 노력해서
국가도 국가이익을 포기하려 노력해서
비밀하고 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 10년만에 의제지의 10년만의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지난 8월 24 ~ 9월 4일까지 상이공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22개국 세계정상들이
의제지 이행계획을 채택하고 입헌의지를 담은 헌법개정문
채택후에 리정준해를 포함한 의제지 이행 의제입헌안을
방정준한을 한 것이다.

민간 기업계도 제2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제지의 이행
은 의제지의 이행계획을 우리나라 헌법에 반영하여
이행해 내도록 정부와 협력을 해야 함으로 약속했다.

TV

중요한 말씀이다.

헌법부의 헌법비판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한해서 그외 다른 것이 리정준을
이 의제지는 헌법비판의 핵심이다.

정부와 상이계, 시민사회가 함께 행동양식을 헌법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앙정부위원이 장이 되는 것으로서
이후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간단히 문제해결은 정정하고 제시하는 대로 처리하는 기구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가지 못하면 안된다.

한국의
헌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박 영숙 신임 위원장 인터뷰>

수신 : 박 영숙 위원장님

발신 : 새)평화방송 라디오국 오 동선 차장
[REDACTED]

전화 인터뷰 요청일시 : 10월 10일(목) 오전 8시 30분 선후부터 약 10분간

프로명 :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대담 : 이 석우 부장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6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박 영숙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박 영숙 위원장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주요 질의 내용 -

- 1) 우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간략히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 2) 박 위원장께서 보실 때 현재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환경보전 현황이 어느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환경훼손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시는 지)
- 3) 박 위원장님께선 평소에도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이 있으셨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와 경제 발전문제를 함께 해결해 내는 좋은 방안을 많이 찾아내셔야 할텐데, 앞으로 어떤 노력과 생각을 특별히 펼쳐 보일 생각인지요?
- 4) 현재 보면 대통령 산하에 많은 자문기구들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또 하나의 기구가 되지 않기 위해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할텐데,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환경마인드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을 하시려면 힘도 드실텐데요 어떻습니까?